

# 함양군-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

### 국비 등 총 381억 지원 확정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

함양군은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국비 255억원 등 총사업비 381억원 지원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.

농촌협약은 365생활권(30분내 보건·보육 등 기초서비스 제공, 60분내 문화·

교육 등 복합서비스 제공, 5분내 응급상황 대응) 구축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위한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.

군은 지난해 6월 공모 선정 이후, 3차례에 걸친 농식품부 및 전문가 검토 조정 과정을 거쳤다.

그 결과 이번 농촌협약 체결로 함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마천·유림면

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의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확정지었다.

특히 함양읍 핵심사업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함양읍 중심지에 미래세대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할 전망이다.

진병영 군수는 “이번 농식품부와의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우리 군이 주거·일자리·생활서비스가 갖춰진 지역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/장흥 기자

jh5696@changwonilbo.com

# 함양-농식품부, 협약 체결 총 381억 지원 확정

함양군은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국비 255억 원 등 총사업비 381억 원 지원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.

농촌협약은 365생활권(30분내 보건·보육 등 기초서비스 제공, 60분내 문화·교육 등 복합서비스 제공, 5분내 응급상황 대응) 구축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위한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.

함양군은 지난해 6월 공모 선정 이후, 3차례에 걸친 농식품부 및 전문가 검토 조정과정을 거쳤다. 그 결과 이번 농촌협

약 체결로 함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마천·유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의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확정지었다. 특히 함양읍 핵심사업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함양읍 중심지에 미래세대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할 전망이다.

진병영 군수는 “이번 농식품부와의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탄력이 붙게 됐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우리 군이 주거·일자리·생활서비스가 갖춰진 지역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곽미경 기자